

권한 줄인 대통령제 vs 사실상 내각제

민주-한국당, 개헌안 권력구조 개편 놓고 대치

원내대표 협상도 난항... 지방선거 동시투표 불투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극명하게 다른 권력구조 개편안을 제시, 향후 개헌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로 점철돼온 현행 대통령제를 어떻게 개편하느냐가 이번 개헌의 최대 쟁점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해법이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우선 민주당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골자로 권한을 대폭 축소할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 및 책임총리제'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내각제로 볼 수 있는 개헌안을 내놨다.

민주당의 개헌안, 즉 정부 개헌안은 책임입장 구현 및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고, 현행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헌법기관

구성 등에 있어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 기관화하도록 한 것도 그 일환이다. 또 정부의 법률안 제출 시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예산심의와 조약 체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의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헌안에 대해 한국당 등은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는 개헌이 아니다"라고 반발한 데 이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몰아붙이며 국민 저항운동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 및 책임총리제'를 전면에 내세운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을 통할하는 책임총리를 둔다는 것으로, 핵심은 현재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권한을 대폭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도록 하고, 이렇게 선출된 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개편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제 유지를 골자로 개헌안을 마련한 여권 입장에서는 한국당의 개헌안을 수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 여야가 확연히 다른 해법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의 개헌 협상은 첨예한 대치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중단한 채 여야 원내대표 간 '정치 협상'으로 개헌의 물꼬를 트려 하고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개헌 시기, 권력기관 개혁, 선거구제 개편 등 또 다른 개헌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안이 마련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이 요구하는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물론 한국당이 제시한 '9월 개헌 국민투표' 실현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



한자리에 모인 민주 수도권 예비후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오른쪽 두 번째), 박영선 의원(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전철철 의원(맨 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4·3 70주년 추념식이 끝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와 정의 “2중대 아닌 독립여단”

바른미래와 차별화된 ‘캐스팅보터’ 표방... 개헌·추경 역할 관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이 제4 교섭단체로서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사) 정보'로 분류되는 평화와 정의는 일단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집권 여당의 2중대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시선을 불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새 교섭단체의 첫 원내대표를 맡은 정의 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에 출연, “저희는 민주당 2중대라는 표현을 사양하겠다”며 “2중대 눈에는 2중대만 보이는지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방침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리는 2중대가 아니라 독립여단으로서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지지하고 연대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냉정하게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안철수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식을 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에 출마하면 시민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공언했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제2대 국회부터 9대 초반까지 활용된 곳으로 민의의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근현대사의 과거를 뒤로하고, 서울의 미래를 새롭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이병훈 “마을경제 위해 관광산업 발전시켜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3일 “광주의 골목상권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 관광과 공예, 소매점을 중심으로 한 마을산업 활성화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마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마을단위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고 게스트하우스, 마을문화상품 개발, 공예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떡, 정과, 차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지역 푸드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앱 개발을 강화하고 이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지원할 마을협동조합 조직 구성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만채 “젊은 예술인 활동 여건 만들겠다”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3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예총 이승정 회장을 비롯한 40여명의 문화예술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남 문화예술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장 예비후보는 “예술인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작품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특히 전남도교육감 시절 유지했던 에코에듀센터가 순천 뿐 아니라 전남 문화예술 전반의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같은 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이윤석, 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 등록



이윤석 전 국회의원이 3일 무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18~19대 당시 무안·신안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 전 의원은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나서 국회 복귀를 노린다. 평화당은 조만간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이 전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다. 전남도위원을 시작으로 정치에 뛰어들어 그는 제7대 전남도의회에서는 최연소 도의회의장을 역임했으며 제18대 총선에서는 무안·신안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됐다.

광주시교육감 후보

이정선 “창의성 신장만큼 성적도 중요”



이정선(59·전 광주교대 총장)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3일 “정위국 현 광주시교육감 취임 이후 광주 학생들의 서울대 등록자 수가 50% 감소했다”며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 뿐 아니라 학업성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학부모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3년간 대학 진학 실적을 살펴보면라도 상위권 모든 대학의 진학률과 연관성이 높은 서울대 등록자 수 현황이 급격히 감소 추세이며, 장 교육감 취임 이후 50%나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경우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에서 2011년 이후 국어·영어·수학 ‘기초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태”라며 “이는 지난 8년간 광주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 평준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덧붙였다.

김영록, 순천 선거사무소 개소... 필승 다짐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3일 순천시 조례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승리 출정 선언문’에서 “오만과 불통, 켜켜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전남의 민심은 이제 김영록 예비후보의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의 새로운 천년을 향한 도민들의 열망과 도민들이 부여한 시대적 소임을 받들어 전남의 발전, 도민들의 삶을 위해 온 몸을 바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개호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이종걸·김기갑 등 전·현직 국회의원, 최인기 전 전남지사, 박광태 전 광주시장, 진경스님 등 지지자 30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전남 농민운동동지회 신정훈 지지선언



80~90년대 전남지역 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원로들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3일 신정훈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광주전남농민운동동지회는 이날 성명에서 “신 예비후보는 20대 때 농민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왔다”면서 “신정훈 예비후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평생 고향 전남에서 살고 있는 만큼 그 누구보다도 전남을 잘 알고, 지킬 사람”이라며 “눈치만 보다가 슬그머니 입당해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는 후보, 당헌당규조차 제대로 지키고 실천하지 못하면서 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후보들과는 분명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정욱·오광록·김형호 기자 kroh@

최영태 “광주형 입시체계 수립할 것”



최영태(64·전남대 교수)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최근 “광주형 입시체계 수립을 위한 대학·교육청·학부모 간 대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이 지난 8년 동안 대입 수시 증가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회복을 위해서는 수요자인 대학과 공급자인 중·고교가 거시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이 주도해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 신입생 유지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광주형 입시체계를 수립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욱·오광록·김형호 기자 kroh@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57,7평) 건물 : 728,97㎡(220,5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2,317,8평) 건물 : 6,864,61㎡(2076,5평)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종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외에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등)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41,2평) 건물 : 265,58㎡(80,3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939,1평) 건물 : 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메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837,6평) 건물 : 3,793㎡(1147,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육 적합 (중축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187,4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833,6평) 건물 : 3,568,32㎡(1079,4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701,4평) 건물 : 3,998,33㎡(1209,4평)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공장) 토지 : 7,339,4㎡(2220,2평) 건물 : 4,153,34㎡(1256,4평) 감정가 : 6,489,967,980원 최저가 : 4,542,978,000원
-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근린주거) 토지 : 4,200㎡(1270,5평) 건물 : 401,96㎡(121,6평) 감정가 : 473,683,800원 최저가 : 331,579,000원
-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공장) 건물 : 1149,74㎡(347,8평) 감정가 : 675,787,160원 최저가 : 675,787,160원
-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공장용지) 토지 : 15,590,5㎡(4716,1평) 감정가 : 1,839,679,000원 최저가 : 1,030,220,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